

# 재계 총수, 다보스포럼 총출동... 부산엑스포 유치 힘 보탠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 등 참석 해외 주요인사들에 엑스포 지원 요청 현대차, 엑스포 홍보차량 58대 운영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 경제 환경 흐름을 분석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로 53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이날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재계 대표적인 총수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교류하며 경제 위기, 기후위기, 일자리, 인공지능(AI) 등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주제를 화두로 의견을 교환한다. 오는 18일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인텔, IBM, JP모건 CEO가 함께 하는 간담회가 대표적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통령실

이다.

국내 기업 CEO 중에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한국 기업인이 다보스포럼 산하 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화학 산업 주요 현안을 검토한다.

또 국내 총수들은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다.

세계 여러 기업의 총수와 주요 경영진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만큼 정·재계 인사들에게 엑스포 개최로서 부산의 이점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대한상의 주최로 '한국의 밤' 행사가 열리는 데, 기업 총수들은 이 자리에 한데 모여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동안 현지에서 부산엑스포 홍보 문구가 랩핑된 차량 58대를 운영한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모인 각국 주요 인사와 현지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

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엑스포 비전에 맞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18대, GV60 8대, 현대차 신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5대 등 친환경차 45대를 투입한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에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장 입구에 부산엑스포 로고가 적용된 투명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도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부산엑스포 전담 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T'를 구성한 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등에서 유치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무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1월 열리는 다보스포럼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지난해에는 행사가 5월로 늦춰진 바 있다. 이번 포럼은 3년 만에 1월에 재개되는 대면 행사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 제2 중동붐 열린다

# SK, UAE 국부펀드와 기후변화 위기 협력

무바달라와 파트너십 구축 MOU 운영·워킹그룹 등 협의회 구성

SK그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국가적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경영과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SK는 15일(현지시간) UA

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을 대표해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성사될 수 있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민간 기관이 인증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이다.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은 물론,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기관도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앞으로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운영위원회와 워킹그룹 등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인증 방법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새 수장 찾는 전경련... 쇠신 본격화

허창수 회장, 다음달 사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면적인 쇠신을 위해 새로운 회장을 찾는다. 젊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다음달 23일 정기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허창수 회장이 다음달 사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2011년 처음 회장에 올라 12년간 5차례 연임해왔다.

전경련은 허 회장 임기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오랫동안 재계를 대표하는 조직이었지만, 2016년 '국경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주요 그룹사가 탈퇴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인 '전경련 패싱'을 보여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여전히 예전만 한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허 회장도 이같은 상황에 '전면적인 쇠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회장을 계속 맡아왔지만, 더이상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전경련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손경식 경총 회장을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전경련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쇠신 노력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1939년생으로 재계에서도 고령이라는 점 역시 전경련 차기 회장으로는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대신 유력한 후보로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각각 1956년, 1953년생으로 재계 총수들 중에서는 '형님' 뺨치면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왼쪽)이 마스크를 수거하는 모습. /코오롱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영상을 통해 임직원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2025를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차이가 크지 않아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전경련이 쇠신을 위해서는 우선 4대 그룹을 다시 회원사로 가입시키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 재계 총수들 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쇠신 의지도 강하다. 이웅열 회장은 이미 전경련 혁신위원장으로 발탁돼 쇠신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 회장은 2021년부터 전경련에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을 맡아왔으며,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은 지금 내부 쇠신은 물론이고 4대그룹의 전경련 가입이라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며 "혁신과 전경련 외연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중량감 있고 신망이 두터운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중기부, UAE 경제부와 中 小 企 혁 新 支 援 '맞 손'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육성 DMI와 韓 콘텐츠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손잡고 양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UAE가 추진하고 있는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 한국의 파트너 역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ntrepreneurial Nation 2.0은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 랩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력을 통

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